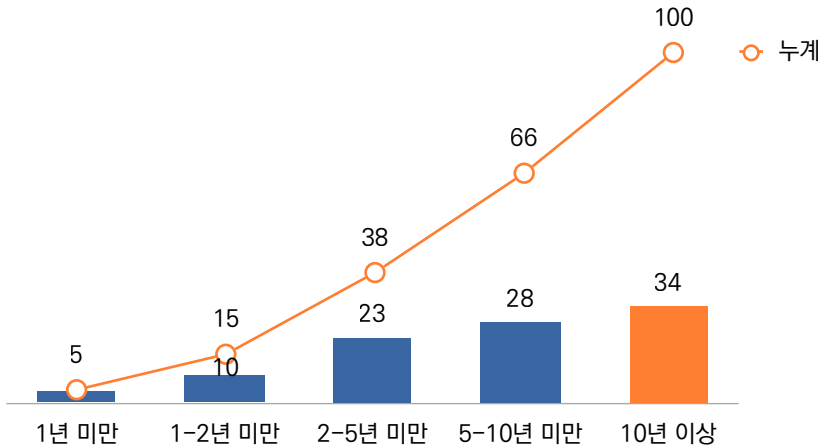




40대 경제활동 시민 3명 중 1명만 현 직장에서 '향후 10년 이상 일할 수 있을 것!'

- ▶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40대는 앞으로 현재 직장(일자리)에서 얼마나 일할 것이라 기대할까? 서울시에서 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10년 이상 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비율은 34%였고, 나머지 66%는 10년 안에 현재 직장을 정리하고, 이직 또는 경력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앞으로 현재 직장(일자리)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(서울시 40대 경제활동 시민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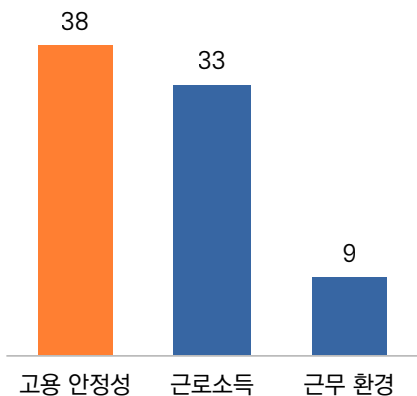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서울시50플러스재단, '서울시, 40대 시민 대상 직업역량 개발 요구조사 실시' 보도자료, 2023.07.13.(경제 활동 중인 서울시 40대 시민 1,248명 대상 조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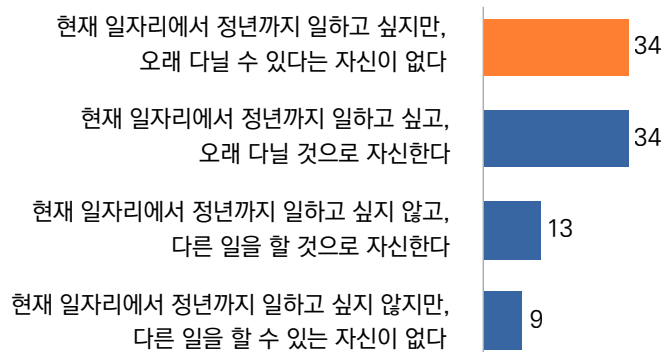
◎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까? 40대 직장인 34%만 '그렇다!'

- ▶ 직장 생활의 주요 요인, 즉 고용 안정성, 근로소득, 근무 환경 등의 요인들을 제시한 후 가장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, '고용 안정성'이 38%로 가장 높았고, 이어 '근로소득' 33%, '근무 환경' 9% 등의 순으로 나타나, 소득 금액보다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더 크게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경제활동을 하는 40대가 체감하는 현재 일자리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'현재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일하고 싶지만, 오래 다닐 수 있다는 자신이 없다'는 응답은 34%, '현재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일하고 싶고, 오래 다닐 것으로 자신한다'는 의견도 34%였다. 현재 40대 직장인 3명 중 2명 이상(68%)은 중년까지 현재 일자리에서 일하길 원하는데, 그 중 절반은 '오래 다닐 자신이 없다'는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.

[그림] 직장(일자리)에 대해 중시하는 가치 (서울시 40대 경제활동 시민, 상위 3위, %)



[그림] 현재 일자리 전망 인식 (서울시 40대 경제활동 시민, 상위 4위, %)



*자료 출처 : 서울시50플러스재단, '서울시, 40대 시민 대상 직업역량 개발 요구조사 실시' 보도자료, 2023.07.13.(경제 활동 중인 서울시 40대 시민 1,248명 대상 조사)